

여수시, 불법 양식시설 강제 철거

고흥·완도 경계 불법 시설물 대상 '관할 해역 수호' 나서...선박 안전운행 등 도모

여수시가 해상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을 강제 철거하는 등 관할 해역 수호에 나선다. 시는 불법 양식시설 제거로 어업질서 확립과 선박 안전운행을 도모한다.

여수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고흥·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김이 수출품목 1위를 달성하며 산지 물값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여수시 초도, 고흥 시산도 등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시설이 늘어난데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ha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이 같은 불법 양식시설은 11월 초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12월 9일부

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불법 시설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12월 9일부터는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시설자를 적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내년 예산안 1조3931억 편성

복지·생태도시·미래 전략형 도시 등 올해보다 1.24% 증가

순천시가 내년 예산안 1조 3931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순천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 3760억원보다 171억원이 증가한 1조 3931억원으로 1.24%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맑은 보육환경과 소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5억원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 22억원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과 영아반 운영 26억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32억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2억 4000만원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및 순천형 장애인 자립 주택운영 2억 6000만원 ▲응급의료 체계 구축 운영 및 무진동 앰بول런스 보급 1억 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생태도시로 체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68억원 ▲자전거 도로 사업 25억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33억원 ▲순천만 어싱길 조성 및 활성화 9억원 등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콤팩트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다이어트 30억원 ▲신대천 정비 30억원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3억원 ▲도심하천정비 사업 33억원 등이 투입된다.

시는 사람과 자연이 모이는 미래 전략형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순천형 미래산업 발굴 20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3억원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9억원 등을 편성했다.

차이가 품격을 만드는 문화·관광·체육 기반 구축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사업 41억원 ▲어울림 체육센터 건립 50억원 ▲오천도서관 건립 15억원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 조성 21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세대인 학생과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창업 보육 기반 조성 및 창업지원 시설 관리 11억원 ▲교육경비 지원 확대 7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0억원 ▲청년활동 및 참여지원 정책 추진 60억원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보조 25억원 등이다.

노관구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도시 공간 체질 개선, 미래 전략형 남해안 벨트 경제도시 완성 등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성황

곡성군이 지난달 29일 군민회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곡성군 소재 6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구직자들의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 타로, 직업 심리 검사, 증명사진 촬영, 정장 대여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가 주관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일하잡(JOB)센터는 곡성군 내 일자리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신규 구인·구직자를 발굴하고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광양 한옥거점공간 '인서리공원' 핫플레이스 뜬다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운영 개시...숙박·카페·전시·체험 등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사진)이 개소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읍 읍내리, 인서리 일원에 조성한 한옥 숙박시설과 한옥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위탁운영 공모를 한 결과 ㈜아트엔라이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아트엔라이프는 바론스카드 50년 경험과 인쇄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ART와 IT를 접목한 기업으로, 아트프린트 전문 소평몰과 온라인 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운영업체인 ㈜아트엔라이프는 광양읍 읍내리 383번지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인서리공원'이라고 작명했다.

'인서리공원'에는 ▲카페 'Aat' ▲예술전시공

간 '반창고', '예담창고', '아트리움' ▲옛이야기를 담은 스테이 '다경당', '해경당', '예린의 집'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시민이 간편하게 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아트프린트 작품을 판매하는 공간인 '아트엔에디션'을 조성했으며, 오래된 주택을 작가의 집이라는 콘셉트로 꾸며 아티스트 갑빠오의 작업실로 활용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상설 전시할 예정이다.

박소연 ㈜아트엔라이프 대표는 "구도심인 광양읍이 과거의 뒤안길에서 새롭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능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향후 광양읍을 작가가 있는 마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도시재생과장은 "광양읍 주민의 많은 관



심과 기대를 받는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이 광양읍을 넘어 광양시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 아동·청소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구례군은 장애인 복지관 및 국립 재활원과 연계해 지난 7월부터 10월 까지 관내 5-7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손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장애체험 교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교육으로 휠체어 타고 장애를 피하기, 목발 및 워커를 이용하여 걸어보기 등 지적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의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도 막대한 재활 및 복지 지원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손상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후천적 장애의 주원인인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및 척수 손상 발생률의 95%는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기대된다.

손상 예방교육(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장애인 감사가 직접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손상 예방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장애 발생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큰 고통을 주며 사회에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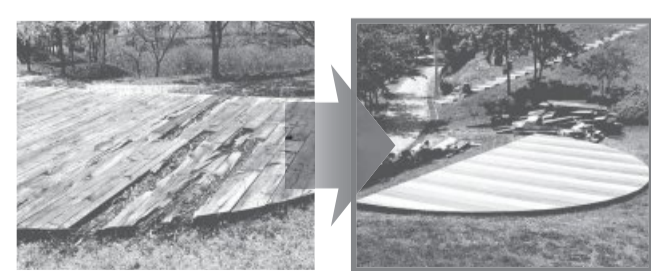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